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동향: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배 현 민¹⁾

최 지 영²⁾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128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연구방법(분석방법, 측정도구), 연구변인, 연구결과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논문은 2003년에 첫 발표되었으며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구대상은 보육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사용된 척도는 박지원(1985)의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보완한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2011년부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층모형 분석은 2017년부터 나타났다. 셋째,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직무스트레스와 교사의 개인특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주요변인에 따른 특징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지지, 교사, 연구동향, 직무스트레스, 소진

1)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 박사수료

2)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choi0122@hnu.kr)

I. 서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1970년대 예방 의학의 대두로 거론되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Cassel(1974)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Caplan, Cobb & French(1975), Cobb(197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언급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사회 환경과 개인의 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시켜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관련 연구들이 시작되었다(김혜화, 2019; 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는 예방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지지 자체가 다면적이며 다기능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별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한다(Caplan, 1974; Cobb, 1976; House, 1981; Kahn & Antonucci, 1980).

해외의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Caplan(1974)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도움이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Cobb(1976)은 개인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중요한 존재이며 서로 소통하는 호혜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 또한,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실질적 도움, 원조, 정서적 관심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인관계로 정의하였다. Vaux(1985)와 Barrera(1986)는 이전 연구의 개념들을 포괄하여 사회적 지지를 지지망의 크기, 지지 행위 그리고 지지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구성되는 복합체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가들(Caplan & Killilea, 1976; Cobb, 1976; Dean & Lin, 1977; House, 1981; Kahn & Antonucci, 1980; Schaefer, Coyen & Lazarus, 1981; Tolsdorf, 1976; Turner, Frankel, & Levin, 1983)이 제시한 개념적 정의를 종합분석해서,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가족, 친구, 친척, 이웃)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오가실 등(1999)은 한국적 의미의 사회적 지지를 정, 도움, 믿음, 사랑으로 개념화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크게 구조적 관점(객관적 지지)과 기능적 관점(주관적 지지)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 관점(객관적 지지)은 개인이 관계 속에서 실제 제공받은 지지를 의미하며, 기능적 관점(주관적 지지)은 제공받은 지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의미한다. Cohen과 Wills(1985)는 구조적 관점(객관적 지지)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인 기능적 관점(주관적 지지)의 사회적 지지가 인간의 안녕이나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크므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관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배지연, 김은이, 2003). 또한, 사회적 지지는 제공하는 대상 즉, 지지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Pettegrew와 Wolf(1982)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측정 연구

에서 사회적 지지를 교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관리자가 기꺼이 들어주고자 하는지,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관리자 지지와 교사의 이야기에 동료교사가 집중하는지, 외부인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료교사 지지로 나누었다. Dworkin, Haney, Dworkin과 Telschow(1990)는 공립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질병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교장의 사회적 지지와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스트레스의 예방 및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화제이며(김명수, 이종훈, 2017; 정추자, 1995; 한유진, 최나야, 2004), 정서적 적응, 생활만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최진아, 2012).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 중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or.kr)에서 ‘사회적 지지’를 이용해 검색한 결과 KCI 등재지 기준으로 1988년 최초 연구가 발표된 이후 현재(2020. 10. 18)까지 총 759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를 연구대상별로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631편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28편으로 17%에 불과하였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며 교사-학생 관계는 양쪽 모두 상대방의 관여 없이는 자신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호의존적인 관계(백순근, 2000)임에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교사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의 활성화와 관심 증대, 그리고 교사를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 경향과 주요 변인, 사용 척도, 연구방법,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수행하는 국제 비교 조사 연구인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이하, TALIS) 2주기(2011~2013) 결과에서 한국 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TALIS 평균(29개국) 및 주요 10개국 평균과 비교할 때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학업에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하기 항목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9.9%에 불과했다. 효과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 지수 점수에서는 한국은 8.03으로, 총 29개 국가 중 26위로, 전체 평균 8.74점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자율성 수준에서도 한국은 분석에 포함된 29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엽 등, 2018). 이뿐만이 아니라 한 교원단체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공동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세를 보이는 교사는 조사대상의 39.9%이며 일반고 3학년 담임교사의 경우는 60.6%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렬, 이세영, 이이령, 김학한, 이원영, 2016). 또한, 교직은 업무의 독립성이 높은 직업으로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동료교사들과 함께 협업하고 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학교의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학년 및 교과 단위로 다시 수업과 평가 등 일련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게 된다.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대부분 교사 개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이나 담임학급 지도시에 발생하는 학생들과의 문제나 학부모와의 갈등상황도 대부분 교사 혼자 감당하고 처리하게 된다(이희현 등, 2017). 따라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직무 스트레스, 소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지며(한광현, 2008; 황명선, 신호정, 2015; Bakkar, Demerouti, & Euwema, 2005; Brouwers, Tomic, & Boluijt, 2011),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Brunetti, 2006; Castro, Kelly, & Shih, 2010). 또한, 교사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권귀염, 2002; 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영미, 2014; 신정순, 2018; 이영미, 2013).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오면서 사회적지지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들(강민철, 김수임, 김동민, 2012; 이은주, 전미경, 2013; 홍세희, 이현정, 이현정, 조기현, 2019; 천재운, 김태훈, 박주령, 2020)과 연구동향분석 연구들(박근숙, 2015; 배지연, 김은이, 2003)이 수행되었으나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나 동향분석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대상, 사용척도, 관련변수, 분석방법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소진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 수립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는 현재(2020.10.18.)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교사(보육, 유치원, 초등, 중등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관련 논문 중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등재지에 게재된 128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

체적인 연구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 검색은 주요 논문검색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or.kr), 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들을 검색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중복 검색된 논문을 제외하였다. 둘째, 검색어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망’과 ‘social support’를 사용하여 1차로 검색한 후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과 국문 초록, 영문초록의 key word를 확인하여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관련 논문 244편을 선별한 후, 유아교육과, 교대, 사범대 학생들을 예비교사로 칭한 논문(5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2차로 선별된 논문들 중에서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학회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제외(89편)하였으며 KCI 등재후보지, 학술대회자료집, 각 대학의 연구논집에 게재된 논문들(23편) 또한, 학술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누락된 논문이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검색어를 ‘지원’과 ‘지지’만을 사용하여 검색된 결과를 선별된 논문과 비교확인 을 통해 1편을 추가하였다. 자료수집의 한계는 논문 제목이나 주요어에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망’, ‘지지’, ‘지원’, ‘social support’를 포함하지 않은 연구들 중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다.

2. 대상논문의 분석영역

본 연구의 분석영역은 연구년도, 연구대상, 표본의 크기, 변수설정, 분석방법, 사회적 지지 유형, 사용된 척도, 연구변인으로 각 항목의 세부기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세부적 항목은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최지영, 배라영(2014)의 연구, 상담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과 장선철(2010)과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박근숙(2015), 배지연, 김은이(2003)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논문

표 1. 분석영역 및 세부사항

분석영역		세부사항
연구년도	연구 대상 논문의 출판년도별 현황	
연구대상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표본의 크기	사용된 전체 표본의 크기(성별 크기)	
척도의 측정 유형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 사회적 지지의 기능	
사용된 척도	척도출처	국내 개발 척도, 외국 척도 번안, 연구자가 기존척도 수정·보완
	척도타당화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 α)
분석방법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다층모형분석	
변수설정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연구주제	직무관련특성, 교사개인특성	

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분석대상논문에 사용된 척도들이 원척도를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수정과 재수정을 거친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척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척도의 측정 유형, 척도의 출처, 척도 타당화를 분석영역에 포함하였다.

3. 분석방법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분석영역에 따라 분석대상 논문을 코딩하였다. 총 128편의 논문을 읽고, 분석영역을 기초로 작성한 코딩표에 따라 분류하였다. 코딩표는 논문 일련번호, 논문제목, 연구자명, 출판년도, 연구대상, 표본의 크기, 척도, 분석방법, 변수설정, 연구주제

등으로 구성된다. 문헌 별로 코딩한 자료는 엑셀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며 이를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자 1인이 연구자와 같이 분석대상논문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분석영역별로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시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자의 연도별 연구대상 분석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현황을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2003년에 처음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논문이 게재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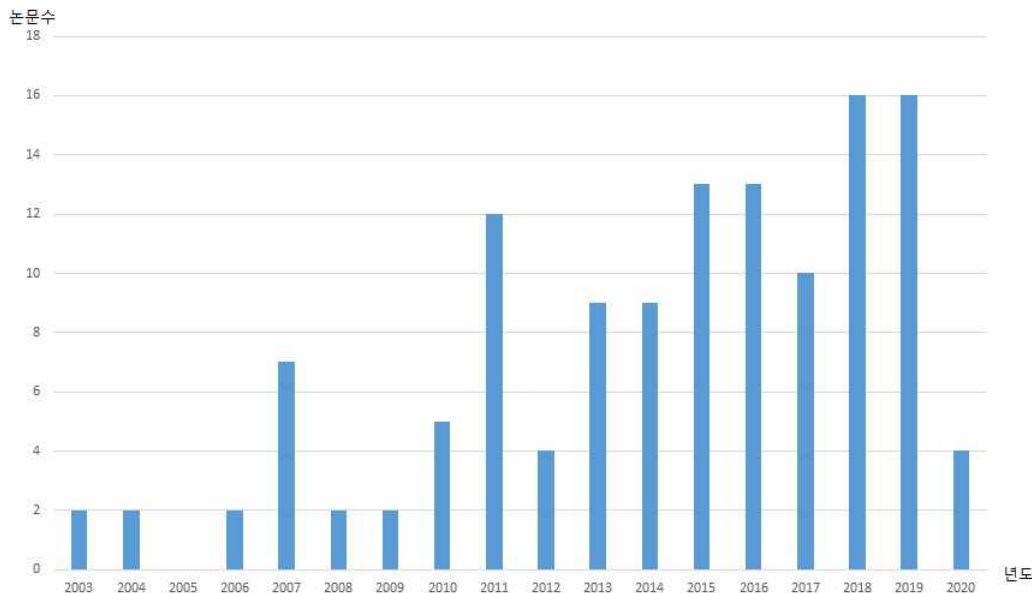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발표된 논문 수

표 2. 연도별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

연구대상	연도(2003-2020)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보육교사		1		1	6	1	1	4	6	1	6	5	7	10	8	9	10	4	80(63.0)		
유치원교사									2			2	2	1			1		8(6.1)		
보육·유치원 교사						1	1			1			1	1		3			8(6.1)		
초등교사										1			1			1	1		4(3.0)		
중등교사		1										1				1	2		5(3.9)		
초등·중등 교사	2				1				2				1						6(4.7)		
상담교사									1										1(0.8)		
특수교사				1					1	1	3	1	1	1	2	2	2		15(11.7)		
초등·중등 · 특수교사								1											1(0.8)		
계	2	2	0	2	7	2	2	5	12	4	9	9	13	13	10	16	16	4	128(100.0)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척도 타당화 연구 논문 1편을 포함한 것으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제외함.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1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연구대상별로 보면 보육교사가 80편(6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 15편(11.7%), 유치원교사 8편(6.1%),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8편(6.1%),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6편(4.7%), 중등교사 5편(4.0%), 초등교사 4편(3.0%), 상담교사 1편(0.8%), 초·중·고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1편(0.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수교

사 대상 논문 중 1편은 척도 타당화 연구로 연구년도를 제외한 다른 분석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보육·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년 거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011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을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표본 크기가 201-300인 경우가 50편(3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0이하 33편(26.0%), 301-400이 24편(18.9%)으로 나타났다.

표 3. 표본 크기(성별)에 따른 분류

	표본 크기									계	성별		
	200 이하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700	701-800	800 이상			여	남	계
연구수	33	50	24	4	6	4	4	2	127		35,938	2,630	38,568
비율(%)	26.0	39.4	18.9	3.1	4.8	3.1	3.1	1.6	100		93.2	6.8	100.0

표본의 성별은 전체 38,568명 중에서 여성이 35,938명(93.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630명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동향 분석 결과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크게 사회적 지지 분석 유형, 분석방법, 척도의 타당도, 사회적 지지의 변수 설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척도의 측정 유형에 따른 분류를 보면 표 4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모두 73편(57.5%)으로 지지원에 의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51편, 40.2%)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원의 경우 직장내 지지(관리자, 동료교사)와 직장외 지지(가족, 친구) 또는 관리자 지지, 동료 지지, 가족·친구 지지로 구분되며, 지지기능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지지원별, 기능별 모두 전체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한 경우(28건, 22.1%)보다

각 하위요인의 값을 분석에 이용한 경우(96편, 75.6%)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에는 지지원 별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측정해 분석에 이용하는 연구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국내 개발 척도, 외국 개발 척도, 여러 척도에서 재구성한 척도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는 83편(65.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외국개발척도 19편(15.0%), 여러 척도로부터 재구성한 척도 25편(19.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개발척도는 모두 박지원(1985)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에 기초한 것으로 박지원(1985)의 척도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한 것이 66편(52%)으로 전체 척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박지원(1985)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4편(3.1%), 박지원(1985)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척도를 다시 연구목적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척도가 13편(10.2%)으로 나타났다. 외국개발척도의 경우 그대로 변안하여 사

표 4. 연도별 척도의 측정 유형에 따른 분류

측정 유형	연도(2003-2020)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지원별	2			1	1			2	4	1	3	3	4	1	2	8	8		40(31.5)
지지원별 전체 평균		1							1				3	3		1	2		11(8.7)
기능별					1	6		1	3	2	2	6	5	5	6	5	5	4	56(44.1)
기능별 전체 평균		1					2	1		4	1		1	2	2	1	1		17(13.4)
지지원의 기능별															1	1	1		3(2.4)
계	2	2	0	2	7	2	2	5	11	4	9	9	14	13	9	16	16	4	127(100.0)

표 5. 연도별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에 따른 분류

		연도(2003-2020)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내 개발 척도	박지원의 척도					1										2	1			4(3.1)	
	박지원의 척도 1차 수정보완		1		1	5			3	9	4	7	2	4	6	5	5	10	4	66(52.0)	
	박지원의 척도 2차 수정보완								1				4	2	3		3			13(10.2)	
	외국 개발 척도	외국척도변안	1		1	1			1	1		2	2	1			1	5		16(12.6)	
	외국척도 변안 후 1차 수정보완									1								2		3(2.4)	
여러 척도 재구성	국내척도						2	2		1						2		1		8(6.3)	
	외국척도												1	4	2		4			11(8.7)	
	국내외 척도	2												2	2					6(4.7)	
계		2	2		2	7	2	2	5	12	4	9	9	13	13	9	16	16	4	127(100.0)	

용한 것이 16편(12.6%), 변안 후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한 것이 3편(2.4%)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외국개발척도는 Caplan, Cobb, French, Harrison과 Pinneau(1980)가 개발한 척도가 13편의 논문에 사용되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Pettegrew와 Wolf(1982)의 척도, Russell과 Cutrona(1987)의 Social Provision Scale(SPS), Blumenthal 등(1987)의 척도, House(1981)의 척도, Iverson, Olekalns와 Erwin(1998)의 척도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척도로부터 재구성한 척도의 경우에는 박지원(1985)의 척도, Pettegrew와 Wolf(1982)의 척도, Iverson 등(1998)의 척도 등을 이용해 재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척도의 타당화 정도를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변안된 척도를 사용한 경우 13편 모두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뢰도(Cronbach α)만을 보고

한 척도를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어느 정도의 타당화 과정(요인분석, 내용/안면타당도)을 거쳐 사용한 척도는 13편 중 7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외국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한 경우도 요인분석을 거쳐 사용한 경우는 1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척도를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한 경우는 85편으로 이중 요인분석을 거친 척도를 사용한 경우는 12편에 불과하며 내용/안면타당도만 확보한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46편으로 가장 많았고, 신뢰도만을 보고한 척도도 27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만을 보고한 척도를 사용한 논문에서 연구자가 타당화 과정(요인분석, 내용/안면타당도)을 거친 경우는 5편에 불과했으며 22편에서는 신뢰도(Cronbach α)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자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한 경

표 6. 사용척도의 타당화 정도에 따른 분류

사용척도 분류	사용척도의 타당화		연구자의 타당화			
원척도 사용	4 (3.2%)	타당도 확보	4	신뢰도	4	
변안된 척도	13 (10.3%)	신뢰도 (Cronbach α)	13	내용/안면타당도	3	
				요인분석	4	
				신뢰도(Cronbach α)	6	
연구자가 변안한 척도	3 (2.3%)	타당도 확보	3	내용/안면타당도		
				요인분석	1	
				신뢰도(Cronbach α)	2	
변안 후 수정·보완된 척도	1 (0.8%)	신뢰도 (Cronbach α)	1	내용/안면타당도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 α)	1	
원척도를 수정·보완한 척도	85 (66.9%)		내용/안면타당도	46	내용/안면타당도	22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 α)	24
		요인분석	12	내용/안면타당도	2	
				요인분석	6	
				신뢰도(Cronbach α)	4	
		신뢰도	27	내용/안면타당도	4	
				요인분석	1	
				신뢰도(Cronbach α)	22	
		재구성된 척도	5 (3.9%)		내용/안면타당도	3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 α)					2
요인분석	1			내용/안면타당도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 α)	1	
신뢰도 (Cronbach α)	1	내용/안면타당도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 α)	1			
연구자가 재구성한 척도	8 (6.3%)	신뢰도 (Cronbach α)	8	내용/안면타당도		
				요인분석	7	
				신뢰도(Cronbach α)	1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척도	8 (6.3%)		내용/안면타당도	1	내용/안면타당도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 α)	1
		신뢰도 (Cronbach α)	7	내용/안면타당도		
				요인분석		
신뢰도(Cronbach α)		신뢰도(Cronbach α)	7			
	127 (100.0)		127 (100.0)		127 (100.0)	

우 5편 중 요인분석을 거친 척도를 사용한 논문은 1편에 불과했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척도를 재구성해 사용한 경우는 8편으로 7편이 요인분석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기존 척도를 수정·보완해 사용한 연구는 모두 8편으로 신뢰도(Cronbach α)만을 보고한 척도를 타당화 과정 없이 다시 신뢰도(Cronbach α)만을 확인한 후 사용한 경우가 7편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표 7과 같이 회귀분석이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이 68회(39.1%)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방정식모형분석 26회(14.9%), t-검증 24회(13.8%), 회귀분석(단순·중다) 21회(12.0%), 분산분석 20회(11.5%)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사용되

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 2편에 불과하기는 하나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사회적 지지의 변수 설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표 8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독립변수로 설정된 경우가 85편(66.9%)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매개변수로 설정된 경우 20편(15.7%), 조절변수로 설정된 경우가 19편(15.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설정해 각각을 분석한 연구가 1편(0.8%)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로 설정된 경우는 전체의 2.4%인 3편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는 해마다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설정한 연구는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도별 분석방법에 따른 분류

분석방법	연도(2003-2020)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관분석	1				1						1	1				1			5(2.9)	
빈도분석											1	1				1			3(1.7)	
t-검증		1		1	4			2	1	1	4	2	1	1	1	4		1	24(13.8)	
분산분석		1		1	2			3		2	1	2	1		1	4	1	1	20(11.5)	
회귀분석 (단순·중다)		1		1	2			2	1		2	1	3			2	4	2	21(12.0)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2			1	2		2	3	9	3	2	5	7	9	4	7	11	1	68(39.1)	
경로분석		1				2								1	1				5(2.9)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1							4	1	1	2	3	3	4	5	1	1	26(14.9)	
다층분석																1	1		2(1.1)	
계	3	5	0	4	11	2	2	10	15	7	12	14	16	14	11	25	17	6	174(100.0)	

표 8. 연도별 사회적 지지의 변수 설정에 따른 분류

설정변수	연도(2003-2020)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립변수		2		1	6	2	2	5	7	3	8	6	8	8	6	10	7	4	85(66.9)	
매개변수				1					4	1		1	1	5	2	2	3		20(15.7)	
조절변수	2				1				1			1	3	1	1	3	6		19(15.0)	
종속변수											1		1			1			3(2.4)	
계	2	2		2	7	2	2	5	12	4	9	8	13	14	9	16	16	4	127(100.0)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관계 설정을 살펴보면 표 9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독립변수로 설정된 경우 종속변수는 소진(39)이 가장 많았으며, 직무만족도(12), 행복감(11), 조직몰입(10)의 등이 많이 설정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이들 종속변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교사효능감(7), 직무스트레스(6), 자아탄력성(5), 직무만족도(3) 등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우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로 설정된 경우 독립변수로는 직무스트레스(5)와 정서노동(3)이, 종속변수로는 소진(7), 직무만족(4), 교사효능감(2), 행복감(2)이 많이 설정되었으며 대부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

표 9. 사회적 지지와 관련 주요 변수의 관계 설정

사회적 지지의 변수 설정	관련 주요 변수 설정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교사효능감(7)		소진(39)
		직무스트레스(6)		직무만족도(12)
		자아탄력성(5)		행복감(11)
		직무만족도(3)		조직몰입(10)
매개변수	직무스트레스(5) 정서노동(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1)	소진(7)
				직무만족(4)
	직무스트레스(3) 역할스트레스(3)	교사효능감(1)		교사효능감(2)
조절변수	정서노동(3) 성인애착(3) 우울(3) 자기주도학습능력(1)	대인스트레스(1)	사회적 지지	행복감(2)
		사회적 지지(1)		소진(10)
		자기노출(1)		직무만족(3)
		성장적 반추(1)		우울(2)
종속변수	창의성(1) 영성(1)			사회적 지지

표 10. 연도별 직무관련특성 관련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연구주제	연구변인	연도(2003-2020)																		계 (%)
		03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직무 역량	효능감 (교사, 보육, 놀이교수, 직무수행, 매체활용)								1			1	2	4	1	4	4	2		
	교수매체활용 (지식, 의지, 신념, 태도)								3										33 (11.0)	
	직무역량/발달지식 /수업전문성/교수몰입										2		1	1	1					
	역할수행/ 서비스태도 /리더십/스트레스대처							1					2	1		2				
	교육신념/보육현신 /직업정체성 /직업소명의식										2		1		1	2	1			
	교육성과 인지도 /교육효과인식 /유아교육공동체인식								1								2		11 (3.7)	
	훈육방식														1					
	교사-학생 상호작용 /훈육행동 /학생의문제행동											1		2		1		1		
	원장-교사 관계									1									9 (3.0)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무관련특성				1													2		
직무 스트 레스	직무스트레스	2	1	1	1			3	2	2	3	2		5	2	2	3	1		
	정서노동											2	4	2			1		83 (27.7)	
	역할갈등						2													
	직무소진		2	2	6				5	2	2	5	3	4	3	3	5			
직무 태도 및 인식	조직몰입/조직현신 /조직시민행동 /일몰입/임과위먼트			1	1	2		1		2		1	2	1		2	4		43 (14.3)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2		2	1			1	1			3	5	1	3	2	2			
	전문성인식 /교직적응탄력성							1			1						1			
	근무시간/근무여건/보수 /직무환경위험요소				4				2			1			2	1				
직무 환경	조직문화/직무요구 /직무통제/조직효과성		2									1		1					22 (7.3)	
	조직효과성/학습기회 /집단지존감										3	1	1		2	1				
	계	4	5	7	13	2	2	7	16	6	14	17	23	20	17	19	25	4	201 (100.0)	

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연구(정지언, 박용희, 2016)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연구(김효정, 허봉운, 2019)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여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 설정된 경우는 독립변수로 직무 스트레스(3), 역할 스트레스(3), 정서노동(3), 성인애착(3), 우울(3)이, 종속변수로는 소진(10), 직무만족(3),

우울(2)이, 매개변수로는 교사효능감(1), 대인스트레스(1), 사회적 지지(1), 자기노출(1), 성장적 반추(1)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했으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김화선, 2019)에서는 원장의 지지는 유의하나 동료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중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손경애, 고종욱, 2007). 사회적 지지

표 11. 연도별 교사개인특성 관련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연구주제	연구변인	연도(2003-2020)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 사 개 인 특 성	경험	외상 후 성장 /외상후스트레스 /학대경험																3 (3.0)
	관계	가족건강성																5 (5.1)
		성인애착																
	배경	개인적 배경																2 (2.0)
	인지	인지적 공감 /정서지능																
		귀인성향/반추																13 (13.1)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아 특성	탄력성(resilience) /그릇/긍정심리자본 /자존감/자아효능감																46 (46.5)
영성/인성/성격특성																		
자기격려/자기노출																		
적 응 력	삶의 만족/행복감 /심리적안녕감																23 (23.2)	
	창의성/변화 몰입																	
정서	우울/정신건강																7 (7.1)	
계		8	2	2	2	3	3	10	3	9	9	6	23	16	3	99 (100.0)		

가 종속변수로 설정된 경우 독립변수는 자기 주도학습능력(1), 창의성(1), 영성(1)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고(김세루, 문병환, 2015) 영성이 높은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화, 심은주, 2013).

연도별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를 보면, 표 10과 표 11에서와 같이 크게 직무관련특성과 교사개인 특성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직무관련특성(201편, 67.0%)과 관련하여 더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연구변인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변인, 조직몰입/조직헌신/조직시민행동/일몰입/임파워먼트 변인, 직무만족도/이직의도 변인이 거의 해마다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효능감(교사, 보육, 놀이교수, 직무수행, 매체활용), 교육신념/보육헌신/직업정체성/직업소명의식, 조직효과성/학습기회/집단지존감 변인이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들 중에서 교사개인특성(99편, 33.0%)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자아특성과 적응력 관련 연구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연구변인을 살펴보면 탄력성(resilience)/그릿/긍정심리자본/자존감/자아효능감 변인이 2007년 이후 해마다 빠짐없이 연구되었고 그 외에도 삶의 만족/행복감/심리적 안녕감 변인이 2013년부터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 128편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연도별 연구현황을 보면 2003년에 처음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 2010년을 기준으로 논문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초기에 영유아교사,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다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으로 연구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도별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교사와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96편(7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영유아교사와 유치원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힘든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6)을 고려하면 수긍할만하나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경우 전체교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역시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김정미, 2009; 한광현, 2008)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도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성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는 연구대상이 주로 영유아교사, 유치원교사인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기혼 여교사들의 경

우 워킹맘으로서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뿐 아니라 주부와 원가족의 자녀 역할까지 다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이정희, 김희수, 2017), 이들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다.

전체 보육교사 가운데 남자보육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15).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해 보면 남아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는 남성역할모델로서의 남자교사의 부재는 남아의 성역할 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심미옥, 1999), 특히 보육시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영유아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남성역할모델로서 남자보육교사는 영유아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서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할 수 있는(조경자, 이현숙, 2004) 남자보육교사가 어려움을 더 느낄 수 있고, 대부분이 여자교사인 근무환경에서 여자교사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 남자 교사는 이직, 전직 등을 고려하게 되며(김인경, 2002),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고립될 위험이 높다(임정수, 2005). 또한,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남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등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도별 척도의 측정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측정하는 척도가 사용된 논문이 73편(57.5%)으로 지지원에 의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51

편, 40.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 5에서와 같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가장 많이 사용(65.3%)되는 도구가 박지원(1985)의 척도를 기본으로 수정·보완한 도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박지원(1985)의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로 개발 당시에 높은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0.92 ~ 0.97)와 함께 Pines, Aronson과 Kafry(1981)의 심리적 소진검사 및 Zung(1965)의 우울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보고한 검사 도구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정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 기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측정함으로써 이들 하위요인별로 다른 관련 변수들의 하위요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분석대상논문에서 사용된 전체 척도 중에서 68%를 차지한, ‘원척도를 수정·보완한 척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가 박지원(1985)의 척도를 임진형(1999)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을 지지원(직장 내, 직장외) 대해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척도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타당화 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85편, 68%)을 차지하는 원척도(개발과 타당화를 거친)를 다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한 경우 수정·보완과정에서 요인분석을 거친 경우는 12편(9.4%)에 불과했으며 27편

(21.3%)은 신뢰도(Cronbach α)만을 보고하였고, 46편(36.2%)은 간단히 내용/안면타당도 정도의 타당화 과정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타당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도구를 연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85편 중 연구자에 의해 요인분석을 거친 경우는 7편에 불과했으며 신뢰도(Cronbach α)만을 산출한 경우가 50편, 내용/안면타당도 확보 과정만 거친 경우가 28편으로 나타나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타당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척도를 변안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17편 중에서 9편이 신뢰도(Cronbach α)만 보고하였고 요인분석을 거친 경우는 다섯 편에 불과했다. 이렇게 타당도와 신뢰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척도를 사용할 경우 연구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교사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된 척도의 개발과 사용이 필요하다.

셋째, 연도별 분석방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분석방법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사용되었다. 이는 그동안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인 소진의 경우에 소진을 경

험한 교사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믿음이 중요하며 이렇게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오연희, 손현동, 오익수, 2019). 따라서 앞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같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검증과 분산분석 또한 꾸준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다층모형분석을 이용한 논문이 각각 1편씩 게재되었는데, 다층모형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이 김경성(1991)이 교육평가연구에 논문을 발표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 사용이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교사에 대한 연구는 교사(level 1)가 학교(level 2)에 배속(embedded)되어 있는 다층자료의 속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층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주요변수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가 독립변수로 설정된 경우 종속변수로는 소진이 가장 많이 설정되었으며, 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개인특성변인인 교사효능감, 자아탄력성과 환경특성변인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수보다는 조절변수로 많이 설정되었는데 이 경우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정서노동, 우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소진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 변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상담교사처럼 교사들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하거나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와 같은 교사에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관리자 자격연수 프로그램에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관리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수에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교사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일 있도록 하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넷째, 연도별로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무관련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교사개인특성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교사이며, 소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특성 변인들 중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정서노동, 직무소진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직무태도 및 인식과 관련한 변수들 중 직무만족도/이직의도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대다수가 영유아교사, 유치원교사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등으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6).

교사개인특성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는 탄

력성(resilience)/그릿/긍정심리자본/자존감/자아효능감에 관련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해마다 빠짐없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같이 교사의 개인특성변인 중에서 직무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대표적인 보호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삶의 만족/행복감/심리적 안녕감에 관련한 연구가 2013년 이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교사의 소진문제가 부각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안녕감과 학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이슈화되면서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의 웰빙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김소아 등, 2018).

다섯째, 앞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들이 충분히 누적되면, 향후 이들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개별 연구들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 연구는 그동안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원으로 인식되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로부터 교사를 위한 지지인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동해야 할 필요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

으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훌륭한 교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의 경력주기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만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해외연구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철, 김수임, 김동민 (2012). 산후우울증 유병률 및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연구: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1), 149-168.
- 권귀염 (2002). 유치원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미 (2014).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사회적 지지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성 (1991). 다층자료분석에 관한 연구(분석 방법의 고찰). *교육평가연구*, 4(1), 5-21.
- 김명수, 이종훈 (2017).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소진 간 구조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0), 281-294.
- 김세루, 문병환 (2015). 유아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3(2), 203-223.
- 김소아, 허 주, 이동엽, 김혜진, 유형근, 김미진, 김정현, 이슬아 (2018). 교사 웰빙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인경 (2002). 남자교사의 유치원내에서의 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9). 여교사의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177-199.
-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103-120.
- 김형렬, 이세영, 이이령, 김학한, 이원영 (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실태 조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 김혜화 (2019). 보육교사의 보육신념, 직무환경, 사회적 지지가 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화선 (201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9(3), 215-227.
- 김효정, 허봉운 (2019). 초등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직업 정체성,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과학연구*, 21(2), 245-267.
- 박근숙 (2015). 국내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사회적 지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2000~2011년). *간호과학논집*, 20(1), 1-11.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지연, 김은이 (2003). 사회적 지지에 관한 사회복지 논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45-265.

- 백순근 (2000). 교육평가의 개념에 대한 고찰. *교육평가연구*, 13(1), 1-20.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보육통계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유아정책연구소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어린이집 조사보고.
- 손경애, 고종욱 (2007).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5(4), 73-94.
- 신정순 (2018).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옥 (1999). 교직의 여성화가 초등학생의 성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3(1), 185-212.
- 오가실, 박영주, 오경옥, 김정아, 이숙자, 김희순, 정추자 (1999). 한국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 *한국간호학회지*, 12(1), 780-789.
- 오연희, 손현동, 오익수 (2019). 근거이론에 의한 초등학교 교사의 소진과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5(4), 553-576.
- 이경화, 심은주 (2013). 유아교사의 영성과 직무만족 및 직장 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간의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179-199.
- 이동엽, 허 주, 최원석, 이희현, 김혜진, 함승환, 함은혜 (2018). 한국 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왜 낮은가?(TALIS 2주기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미 (2013). 몬테소리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사회적지지 정서노동 및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전미경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125-141.
- 이정희, 김희수 (2017) 초등 여교사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40대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517-544.
- 이희현, 허 주, 김소아, 김종민, 정바울, 오상아 (2017). 교사 직무스트레스 실태분석 및 해소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정수 (2005). 남성 보육교사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형 (1999). 유치원 초임교사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자, 이현숙 (2004).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육과 여학생의 인식. *한국유아교육학회*, 24(6), 44-62.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 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0.
- 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지각된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25-32.
- 정지연, 박영희 (2016).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정서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 *사고개발*, 12(1), 111-132.

- 정추자 (1995). 사회적 지지모임이 뇌 척수 손상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탐구*, 4(2), 124-144.
- 천재운, 김태훈, 박주령 (2020). 대학생의 진로변인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크기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2-222.
-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 최진아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광현 (2008). 교사의 자원과 대처전략 그리고 소진의 관계. *한국경영교육논총*, 49(1), 327-349.
- 한유진, 최나야 (2004).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생활만족도가 대인 관계 상황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363-384.
- 홍세희, 이현정, 이현정, 조기현 (201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문화포럼*, 58, 173-194.
- 황명선, 신호정 (2015). 교사가 지각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사효능감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1), 87-109.
- Bakker, A. B., Demerouti, E., & Euwema, M. C. (2005). Job resources buffer the impact of job demands on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2), 170-180.
- Barrera, Jr.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Blumenthal, J. A., Burg, M. M., Williams, R. B., Barefoot, J., Haney, T., & Zimet, G. D. (1987). Social support,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artery disease. *Psychosomatic Medicine* 49(4), 331-340.
- Brouwers, André., Tomic, Welko., & Boluijt, Huibrecht. (2011). Job demands, job control,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burnout amo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7(1), 10.5964/ejop.v7i1.103.
- Brunetti, G. J. (2006). Resilience under fire: Perspectives on the work of experienced, inner city high school teacher in the United State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2(7), 812-825.
- Castro, A. J., Kelly, J., & Shih, M. (2010). Resilience strategies for new teachers in high-needs area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3), 622-629.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Pasadena: Behavioral Publications.
- Caplan, R. D., Cobb, S., & French, Jr. (1975). Relationships of cessation of smoking with job 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2), 211-19.
- Caplan, R. D., Cobb, S., French, J. R. P., Jr.,

- Harrison, R. Y., & Pinneau, S. R. (1980). *Job demands and worker health: Main effects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Caplan, G., & M. Killilea. (1976). *Support Systems and Mental Health*. New York, US: Grune & Stratton.
- Cassel, J. (1974). Psychological processes and stress: Theoretical form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3), 471-482.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ean, A., & N. Lin. (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6), 403-417.
- Dworkin, A. G., Haney, C. A., Dworkin, R. J., & Telschow, R. L. (1990). Stress and illness behavior among urban public school teacher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6(1), 60-72.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Pub. Co.
- Iverson, R. D., Olekalns, M., & Erwin, P. J. (1998). Affectivity, organizational stressors, and absenteeism: A causal model burnout and its consequ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 1-23.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Y: Academic Press.
- Pines, A. M., E. Aronson., & D. Kafry.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New York: Free Press.
- Pettegrew, L. S., & Wolf, G. E. (1982). Validating measures of teacher stres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3), 373-396.
- Russell, D., & Carolyn E. Cutrona. (1987).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to stres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1, 37-67. London: JAI Press.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 Behav Med* 4(4), 381-406.
- Tolsdorf, C. C. (197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An Exploratory Study. *Family Process*, 15(4), 407-417.
- Turner, R. J., B. G. Frankel., & D. M. Levin. (1983). Social Suppor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a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3, 67-111.
- Vaux, A. (1985). Variations in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Gender, Ethnicity, and Age. *Journal of Social Issues*, 41(1), 89-110.
- Zung, W. W.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1), 63-70.

1 차원고접수 : 2020. 10. 31.

수정원고접수 : 2020. 12. 17.

최종게재결정 : 2020. 12. 22.

Research Trends in Social Support for Teachers: Focusing on Korean Journals

Bae, Hyunmin

Choi, Jiyoung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cover the trends of domestic research on social support for teachers. For this purpose, 128 academic papers published o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registry were analyzed according to subjects of research, the research methodology(analysis methods, measurement tools), the research variables, and the research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nual research papers were first published in 2003 and have steadily increased since 2010. Infant teachers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subjects, followed by kindergarten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Second, measurements which modify and supplement the indirectly perceived social support measures of Park Jee-won(1985) were used open most,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s were often not secur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most as an analysis method, bu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has been used considerably since 2011, and the multi-level model analysis has been shown since 2017. Third, the subjects most studied were related to job stress and teach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ajor variables.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are discussed.

Keywords: social support, teacher, research trend, job stress, burn out